

요 약

I. 서 론

□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된 기업휴지 등의 간접손실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은 손해보험시장의 주요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은 수요도 미진하며,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상품체계도 갖추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리스크관리는 과거의 순수리스크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개념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의 리스크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보험의 정확한 리스크파악 및 획기적인 상품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영 중단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보험가입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경영 중단 리스크의 규모를 추정하였고, 조건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과 영업레버리지를 기업의 경영 중단 리스크관리와 연결시킴으로써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적정 이익달성에 기업휴지보험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II. 기업휴지보험의 특징 및 리스크관리 역할

1. 기업휴지보험의 개념 및 종류

- ☐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대한 정의는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의 특정 보험종목의 특약 또는 담보위험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익의 상실과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상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할 수 있음.
- ☐ 기업휴지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 기업휴지보험은 영국에서는 이익 상실보험(loss of profit) 또는 결과적 손해보험(consequential insurance), 미국에서는 기업휴지 또는 이익보험(business interruption/income insurance), 일본에서는 이익보험(利益保險)으로 불림.
- ☐ 기업휴지 손실은 그 원인이 기업내부에서 야기된 것인지 외부에서 제공된 것인지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후자의 경우는 우발적 기업휴지보험(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이라고 불림.

2. 기업휴지보험의 특징

- ☐ 전 세계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크게 영국식상품과 미국식상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기업휴지보험의 목적

- 일반적인 보험의 목적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에 부보 되는 유형의 실체인 것에 비해 기업휴지보험의 목적은 무형의 현금흐름이 되며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음.

□ 기업휴지보험에서 계약의 목적

- 영업손익(net profit)과 고정비(standing charge)와 합인 손익, 즉 총이익(gross profit)은 보험계약의 목적에 해당되며 영업외 수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에 해당 되지 않음.

□ 보상하는 손해

- 일반 재물보험과는 달리 기업휴지보험 등의 간접손해보험은 약관상에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영업이익(net profit), 조업의 중단 기간 동안 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standing charge), 보험사고시 기업휴지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함.

□ 기업휴지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사고 시 보험회사의 지급한도로써 기능하며, 비례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임.
-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총이익방식(gross profit) 또는 가산방식과 차액방식(difference basis)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가산방식은 고정비에서 영업 손익을 합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차감방식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두 방법을 통해 산출한 금액은 모두 동일함.

3. 기업휴지보험의 역할

- 국내 기업들이 화재 등으로 인한 휴업손실규모는 2007년 기준 산업 전체로 연간 595조 1,100억원에 이르며 연평균 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국내기업의 기업휴업손해액 추정결과

(단위 : 천 억원)

업 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업	12.2	11.7	11.6	8.2	11.1	11.0	10.7	9.5
제조업	1,984.6	1,934.0	2,269.2	1,689.9	2,888.1	3,050.4	3,199.2	3,607.9
건설업	584.2	634.1	751.7	894.3	1,013.7	1,639.0	1,282.2	1,339.9
도소매업	51.6	103.1	91.7	72.2	52.9	115.8	171.5	213.6
운수업	241.7	242.6	288.3	203.1	369.0	386.8	389.2	422.5
서비스업	174.0	141.9	154.0	191.5	226.7	248.9	300.3	357.6
산업 계	3,048.3	3,067.4	3,566.6	3,059.3	4,561.5	5,451.7	5,353.1	5951.1

- 국내 기업들의 휴업손실규모를 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광업,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휴업손실액 규모는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휴업손실액 = 총매출액-(대손상각액+현금할인액)

=순매출액 - 재고제품증가액 - 제품판매가액(원부자재비) 등

- 사업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중요

— 기업들은 복잡다기화 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적기에 제품을 제 공하기 위해 사업연속성 관리체제의 구축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기업의 최대목표인 수익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약조건이론 (Theory of Constraints)은 기업휴지보험과 그 기능이 동일함.

— 스루풋은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여 기업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정의되 며, 매출액(T/O)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스루풋 = 매 출액(T/O) - 변동비(VC))과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TSI)은 동일

— 스루풋(T) = 영업이익(NP) + 고정비(SC)
=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

□ 영업리스크관리에 필요

— 기업휴지로 인한 손실은 주로 재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의 손 실과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발생에서 비롯됨.

— 이는 영업레버리지가 커서 매출액의 감소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변 화폭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 기업휴지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게 되 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며, 또 실제로 기업휴지 손실은 영업레버리지가 큰 경우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text{영업레버리지(DOL)} = \frac{\text{영업이익증가율}}{\text{매출액증가율}} = \frac{\Delta EBIT / EBIT}{\Delta Q / Q}$$

ΔEBIT: 영업이익 증가분

EBIT: 영업이익

ΔQ: 판매량의 증가분

Q: 판매량

□ 제조업의 경우 특히 영업레버리지(DOL)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가의 고정자산인 생산설비 또는 용역

설비의 복구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기업휴지에 따른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음.

산업별 영업레버리지 추이

업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광업	-57.98	-30.34	52.92	-31.21	-55.43	20.05	19.76	30.39
제조업	6.37	8.27	6.39	6.15	5.25	6.19	6.93	6.34
건설업	15.00	10.22	8.94	6.71	6.78	5.44	5.82	6.15
도소매업	16.43	11.80	10.39	9.26	9.43	9.70	10.81	9.55
운수업	18.34	24.42	34.05	18.97	12.96	15.83	27.62	18.39
서비스업	14.05	17.34	26.64	21.30	14.75	12.48	10.90	9.67
제조업 세분류	대기업	4.90	6.51	5.37	4.98	4.15	5.09	5.54
	중소기업	10.37	12.80	9.01	9.66	9.91	9.24	9.44
	수출	6.18	11.82	6.30	5.98	4.85	6.65	7.36
	내수	6.51	6.94	6.44	6.28	5.68	5.84	6.61
	중화학	5.99	8.39	6.23	5.65	4.75	5.72	6.56
	경공업	8.20	7.88	7.03	8.90	9.14	9.04	8.87

III.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운영현황

1. 미 국

- 미국에서 기업휴지보험은 1880년 Dalton대리점이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에 들어 총수익방식이 도입되어 영국식 이익보험과 대표적인 상품으로 발전하였음.

□ 미국에서 기업휴지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은 상업재물보험 (commercial property policy), 기업소유자종합보험(business owner's policy), 독립된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상업재물보험은 비교적 영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용하는 약관이며, BOP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품체계임.

□ 사업소유자종합보험

- 사업체 종합보험의 가입업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small sized business)이나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 보험을 소기업 종합보험(small business owners policy)이라고도 하며, 또 이들 보험의 가입기업체들이 주로 중요도로(main street)옆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라는 점에서 중요도로 기업체 보험(main street business insurance)이라고도 부름.
- 사업체 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담보는 재산손해의 담보하는 위험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개념이며, 담보방식은 열거위험양식(named-perils form)과 특별양식 (special form)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사업체 종합보험의 재산손해의 담보위험(BI담보위험)

구분	Basic Form	Special Form
담보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 /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붕괴, 화산활동, 재물의 운송위험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come, extra expense), 연기/증기/가스, 증기장기, 냉동배관, 부정직, 붕괴, 오염, 마모/녹/부식 등 위험, 기상조건 등
면책사항	법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damage)	

□ 상업용 종합보험

-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은 사업체 종합보험과 같이 재산손해를 기본 담보축으로 하고 배상책임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으로 기업휴지보험을 담보하지만 규모가 큰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기업휴지손해의 담보위험은 재물손해의 담보위험(causes of loss)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든가 아니면 특정 위험만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함.

상업용 재산보험의 재산손해의 담보위험(BI담보위험)

구분	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
담보 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붕괴, 화산활동	-Basic Form의 담보위험 -낙하물, 설재, 수침손, 다른 붕괴	면책사항외 모두 담보, 운송중인 개인재산, 유리파 손
면책 사항	법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 미국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만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조사기관이나 조사목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해에 따른 사업 계속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기업은 43%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9%는 2년이 지나야 사업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Safeco사가 미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기업휴지보험에 전체 중소기업의 45%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업휴지의 원인으로는 전력시설 72%, 컴퓨터H/W 52%, 통신수단실패 46%, S/W문제 43%, 인적실수 34%, 낙뢰 34%, 홍수 17%, 화재 14%, 허리케인 12%로 나타났음.

□ 미국의 기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는 2001년의 9.11 테러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와 같은 지진, 테러 등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재해 발생으로 경영활동이 중단될 경우 중요업무를 가능한 신속하게 복구시켜 기업의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2001년 9.11 테러의 경험은 테러 이전에 각 조직 단위로 실행되던 미국의 개별적인 재해관리체제를 정부기관, 사업체, 자원봉사 조직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조직들이 동시에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관리체제로 변화하게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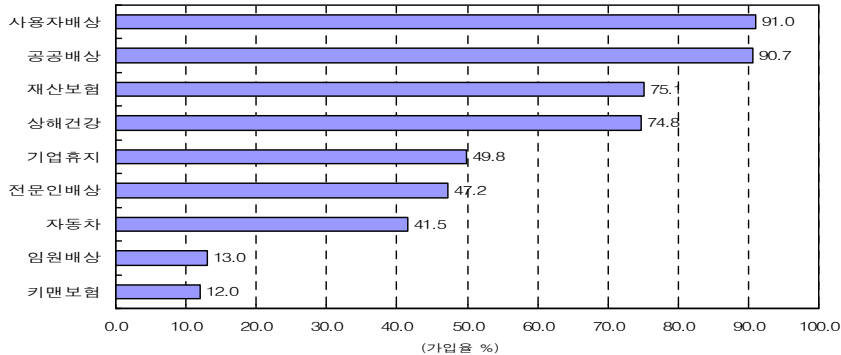
— 사베인즈-옥슬리 법의 404항(Sarbanes-Oxley Section 404)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은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기업의 사업연속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재해나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이의 관리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2. 영 국

- ☐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1797년에 Minerva Universal회사가 결과적 비용 및 이익손해(consequential loss)를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39년에 현대적인 기업휴지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영국식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식 기업휴지보험과 더불어 기업휴지보험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게 되었음.
- ☐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을 첨부한 형태의 상품과 상업용 물건을 대상으로 한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insurance)으로 구분됨.
- ☐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의 보험과 같이 국제 표준형태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영국식 기업휴지보험은 총이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 통상적으로 영국의 기업휴지 보험은 다른 나라들처럼 패키지보험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로 통칭되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업용 종합보험 (commercial combined insurance)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policy)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도 소매업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약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나 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 경영중단 손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맞춤형 보험 상품 (Tailor-made Cover)임.
- ☐ 영국 중소기업의 52%는 매년 평균 22,914파운드의 기업중단 비용이 발생 하는 중단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기업의 소유 자나 경영자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1만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영국 중소기업의 보험가입현황(2008.3)



- Hiscox사의 2007년 중소기업 5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44%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결과적 손해 (consequential loss)에는 30%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우 영국에서의 기업휴지보험의 가입률은 보편화되어 있음.
- 영국은 정부차원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사업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대한 표준규격”임.
 - 영국표준협회는 사업연속성연구소(Business Continuity Institute)와 공동으로 2002년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 대한 공공표준인 PAS56을 제정, 보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6년과 2007년에 BCM에 대한 실행지침(BS 25999-1)과 규격(BS 25999-2)을 제정 및 발표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음.
-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사업연속성 리스크관리 정책을 기업

휴지보험의 보급과 시장개척의 활로로 삼아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여 재난대비 역량과 복원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음.

- 영국의 Zurich 보험사의 경우 “Zurich Risk Engineering,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ervices”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의 개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감사, 기업휴업(business interruption) 모델링, 기업충격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일 본

- 일본의 기업휴지보험인 이익보험의 역사는 영국 등 유럽국가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70여년에 불과하지만 전후의 경제발전에 따라 이익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인회계사제도의 도입으로 기업회계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되자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
- 현재와 같은 일본식 약관체계는 1981년에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으며 1987년 6월에는 이익보험의 요율체계를 개정하여 실시하였고 현재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부대하는 형태로 이익보험이 운영되고 있음.
- 화재보험의 이익보험담보특약
 -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첨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이익담보특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및 특약)의 담보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상실이익』과 손실(상실이익)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익감소 방지비용』을 보상함.

- 이익보험에서 상실이익은 피보험자인 사업자의 영업수익 중 영업이익과 영업비용(경비)중 고정비의 일정 부분 즉 부보경상비를 담보함.

☐ 화재보험의 영업계속비용담보특약

- 영업의 휴지나 저해가 되지 않도록 영업의유지 및 계속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익보험과 동일하게 약관구성상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및 영업계속비용보험용)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 기업비용 및 이익종합보험

- 이익보험과 영업계속비용보험을 합한 종합보험 성격으로 화재보험과 점포종합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하며, 점포휴업보험과 같이 독립적인 상품으로 이익보험에서 담보하는 상실이익과 수익감소방지비용, 영업계속비용보험에서 담보하는 영업계속비용을 동시에 담보함.

☐ 초비지니스 보험

- 초비지니스보험은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복잡하게 기업내외부적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과거의 일반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으로는 기업의 니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됨.
- 동 보험 상품은 보험가입대상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아 업종별로 리스크특성에 맞는 담보를 제공하며 사고시 효율적인 보상, 선택을 제공하며 독자적인 할인제도와 계약절차와 관리가 간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본에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을 이용한 휴업손실 리스크관리는 일본식 이익보험이 개발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에 도입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이 미진하자 현재 일본 보험업계는 독립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담보가 가능하거나 담보방식을 달리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동경해상 초비즈니스보험의 담보체계

구 분	기 본 담 보 위 험	선택담보 위험(보험상품)
담보 위험	재물손해담보: 건물, 설비, 집기, 운송중 상품제품 휴업손해담보: BI, CBI를 포괄 담보 재산책임보상: 사업활동관련 배상책임 상해보상: 취업중 임직원 상해 산재초과보상: 산재시 산재초과손해 담보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지진보험
컨설팅 서비스	IT 컨설팅시스템을 통해 보험료견적을 즉각적으로 실시	

- 2007년 10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29%는 이미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고, 36.1%는 구축 중에 있으며 32.5%는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 일본 손해보험에서는 비용이익종합보험, 초비즈니스보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익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사업연속성관리(BCM)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중소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들은 정부차원에서 사업연속성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의 사업연

속성관리의 영역을 손해보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IV. 국내 기업휴지보험 운영 현황 및 평가

1. 상품 운영현황

□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영문약관)

—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업휴지보험은 1960-70년대 경제발전 시기에 외국차관업체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요청으로 재보험출제가 가능한 영문약관이 필요하게 되어 1970년 9월 24일 미국식(gross earning form)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제조업체용)이 영문화재보험약관(FOC policy)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가되었음.

— 그 후 1983년에는 영국식 이익보험약관(loss of profits)과 상업 및 비제조업체용(gross earning form no.3 상업용, gross earning form no.4 제조업체용)의 미국식 기업휴지보험 약관이 인가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음.

□ 화재보험의 기업휴지보험(국문약관)

— 기업휴지 등의 특별한 리스크에 대한 국내의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가격산출이나 리스크관리 수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7년 11월 2일에 기업휴지보험특약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국문약관의 시장규모는 2006년의 경우 26건 계약에 2억원의 보험료로 현재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음.

□ 국문기업휴지 특약은 영문약관과 동일하게 보통약관에 특약형태로 첨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화재이외의 위험(peril)으로 인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 기업휴지보험특별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확장담보위험에는 폭발, 풍수재, 전기, 소요노동쟁의, 차량위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확장위험담보 등이 있음.

□ 국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일본의 이익보험과 유사하게 총수익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영국식 약관에서 사용하는 복구기간 등을 채용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재산종합보험(Package All Risk Policy)

— 재산종합보험은 미국과 영국, 일본 초비즈니스보험과 같은 Package Policy로 1968년 도입 판매되었음.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담보구성	면책/확장담보	세부사항
Package Insurance Policy	Master Schedule	부보명세서	보험계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규정
	Operative Clause	약관전체 적용특약	
	General Exclusion	약관전체 면책사항	
	General Condition	약관전체 계약조건	
	Section I : Property All Risks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 : Machinery Breakdown Cover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provision applying to	
	Section III : Business Interruption Cover	special exclusion	
		provision applying to	gross profit basis standing charging basis
		additional memoranda application to	off-premises power
	Section IV : General Liability Coverage	special exclusion	
		special extension 1	pollution liability Employer's Liability
		special extension 1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Cover(복미수출부담보)
		provision applying to	

- ☐ 우리나라의 재산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 담보는 영국식인 총이익기준(gross profit basis)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관의 규정방식은 화재보험이 영국식과 미국식을 혼합한 하나의 형태인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있음.
- ☐ 재산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담보는 화재보험과 비교할 경우 담보위험에 의한 물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담보위험에 있어 큰 차

이가 있음.

- ☐ 재산종합보험은 상품 도입초기부터 해외 재보험자가 제시하는 보험요율을 구독하여 사용하여 온 관계로 지금까지 요율수준이나 요율산출체계 등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약실적이나 손해율 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2. 국내 기업들의 활용사례

- ☐ 2000년 이후 화재 등으로 재물 손해를 공시한 8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른 기업 성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군(보험가입)은 사고 발생 후 가입하지 않은 기업군(보험미가입)에 비해 사고 발생(AY: Accident Year) 전후의 부채비율, ROE,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영업레버리지율(DOL)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3.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인식

- ☐ 설문에 응한 73개 기업 중 21%인 15개 기업이 기업휴지보험에 가입(가입률 21%)
- ☐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에게 가입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0%인 9개 기업이 “스스로 기업휴지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를 가입하였다고 응답함.
- ☐ 설문 결과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15개 기업 중 5개의 제조업체만 영업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5개 기업들은 최저 30일에서 최대 180일의 영업중단 기간 동안 기업휴지보험금이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 향후 기업휴지보험을 계속 가입하겠다는가에 대한 의향을 설문한 결과 93.3%가 계속 가입하겠다고 응답함.
- ☐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업휴업손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 ☐ 미가입 기업들의 향후 기업휴지보험 가입의향은 11.5%로 나타남.
- ☐ 보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의 결과, 높은 보험료의 인하(41.4%), 기업의 종합적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다른 상품의 개발제공(21.4%),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21.4%)이 가장 많은 순위로 응답하였음.
- ☐ 반면에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에 있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6순위의 사유를 보면 보험회사의 가입심사 기준을 완화(33.3%), 보험회사의 기업휴지보험 전문가 양성(33.3%) 등을 들고 있음.

V.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안

1.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 ☐ 기업휴지보험은 무형의 매출액 감소와 같은 재무적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동 사고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사전에 의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험가입 유인이 적은 특성을 가짐.
- 화재보험의 경우 제조업체의 가입률은 0.05%에 불과하며 과거에 비

해 큰 변화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 공장물건 화재보험계약은 4만 9,841건이 체결되었지만 23개 기업만 기업휴지손해 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있음.

-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기업들이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건수 기준 9.4%).
-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 규모를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최대 4,8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향

- 특정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었다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험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약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계약자들에게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적정하게 존재해야 함.
-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높은 보험료수준,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기업 휴지보험의 활성화 방향

고려요소	현 재	개 선 방 향
상품	국내 독자 상품 부재 계약자 니드 미반영	독자 상품 상품 판매 업종별 니드 부합상품개발 다양한 보상방식 상품개발
가격	해외 재보험자 의존	국내 보험사 산출
판매방법	임직원 직접판매	고객군별 차별채널 전략
광고	전혀 하지 않음	리스크관리서비스와 병행

2.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 ☐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1960년대에 도입된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화 없이 판매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음.
- ☐ 산업별 기업휴지 리스크의 특성을 기업 당 평균 휴업손해액 규모와 영업 레버리지 비율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업종별로 다른 담보위험이나 보상방식 등을 반영한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 개발 상품의 형태
 - 국내에서 판매중인 국문과 영문 기업휴지보험 상품은 업종별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 상품에 대한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휴지리스크를 한 보험계약으로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상품과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신개념의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일본과 같이 모든 업종의 모든 리스크를 한 증권으로 포괄 담보할 수 있는 초비즈니스보험과 같은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상품

구 분	일 본		미 국
	과거 상품	현재 상품	
서비스업 상업용건물	화재보험	비용이익종합보험	Business Owners Policy
	점포종합보험		
제조업	화재보험	초비즈니스보험	Commercial Property Policy

□ 기업휴지 리스크의 담보개념을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보방식을 개선해야 함.

— 상장기업들과 같이 기업의 회계정보가 투명하여 휴업손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업과 추정하기 어려운 기업을 이원화하여 추정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일본의 초비즈니스보험과 같이 휴업 1일당 정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휴지 리스크만을 독립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함.

□ 기업휴지보험을 하나의 시장영역으로 규정하고 상품 명칭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휴지(企業休止)보험의 명칭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손실보상보험, 사업중단손실보험 또는 경영중단손실보험 등으로 변경하고, EU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전적 손실보험과 같이 기업휴지보험을 손해보험의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3. 보험료 부담완화

□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 부담을 들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높은 보험료 인하(1순위) 응답 비율

(단위:%)

매출액 규모	500억 미만	500억~3000억	3000억~1조	1조 이상
응답비율	48	38	33	26

☐ 높은 보험료 부과이유

- 높은 순보험료(국내 기업들이 계약건당 부담하는 기업휴지보험료는 최근 5개년 평균 3,100만원인데 비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1.21억원)
- 해외 재보험자나 보험자가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
 - 국내 보험실적은 양호함에도 해외보험자의 영업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재산종합보험중 BI담보의 계약건당 보험료

(단위 : 억원)

연 도	건당 가입금액(a)	건당보험료(b)	건당보험금(c)	초과비율(c/b)
2002	146.06	0.35	0.81	2.29
2003	257.06	0.33	6.43	19.53
2004	145.92	0.13	-	-
2005	798.92	0.26	3.00	11.37
2006	546.05	0.41	0.99	2.41
누적평균	475.51	0.31	1.21	3.94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됨과 동시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상품 개발
- 둘째,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제고시켜 기업성 인수물건에 대한 보

험요율 산출권을 국내 원보험사업자(direct insurer)에게로 복귀시켜야 함
(Rating Authority)

- 셋째, 다양한 보험료 차등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야 함.
 - 현재 해외 보험사업자가 어떠한 요율플랜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기업들의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리스크관리규격 인증을 받거나 사업연속성관리(BCM) 기준을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과거 손해를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한증권으로 담보하는 포괄담보할인 제도(package discount) 등이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4. 마케팅의 개선

☐ 기업휴지보험 이해 촉진

- 국내 손보사들은 주로 가계성, 저축보험에 자원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기업성보험 종목에 대해서는 상품개발이나 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처럼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휴지 리스크에 대한 적정 가입 한도 등을 스스로 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예, Travelers 사의 “Business Income and Extra Expense Calculator”)
- 일본의 동경해상, 손보재팬 등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기업들에

대한 BCP 컨설팅 서비스 제고 및 관련 보험상품 개발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을 포함한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능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보험회사와 같이 다양한 기업휴지보험을 비롯한 기업성보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들의 상품의 이해를 촉진하고 고객과의 접근성을 증진시켜야 함.

□ 판매채널 다양화

- 국내에서 기업성보험은 마케팅의 개념이 적용되지 못하는 시장영역으로 인식되어 기업휴지보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성보험이 임직원 등을 통한 직판채널을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선진국의 손해보험회사들과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기업휴지보험 상품이 개발된다면 직판채널이 아닌 대리점이나 중개사채널 또는 설계사들도 기업휴지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종합적 리스크 관리 제도 도입

- 기업휴지보험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인 93%가 계속가입 의향을 보이지만 비가입기업의 경우에는 11.5%만이 신규로 가입할 의향을 보이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불의의 재해나 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로 발생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및 경상비의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업휴지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업의 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복원력의 확보를 제공하는 총체적

관리 프로세스인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화재나 정전과 같은 일반재해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연속성계획(BCP)이 국가적인 규격으로 제정되어 기업들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96%(완료 62%, 수립 중 34%)의 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BCP)을 구축했거나 구축하는 중에 있으며 경영활동에서 BCP 구축이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사례가 일반화 되어 있음.
 - 일본의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매출액 상위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연속성계획(BCP)의 구축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조사 기업의 65.1%가 현재 BCP 구축을 완료했거나 구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주요국의 사업연속성관리 규격 운영현황

국 가	규 격 명 칭	작 성 주 체	비 고
영국	PAS56 Guide to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2003)	영국 규격 협회 (BSI)	예상되는 리스크로부터 사업중단시 사업영향도(business Impact Analysis) 분석을 중요시함
미국	NFPA 1600 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200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일본	사업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 (2005.3)	경제산업성	IT사고를 상정한 BCP 책정 수준, 검토사항 규정
	사업연속성계획책정가이드라인(제1판) (2005.8)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지진까지 상정한 BCP이며, 생명안전, 2차 피해 등 규정

-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기

업들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해경감지원법”이라 한다)』이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0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9월에서야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개선방향

- 보험관리형의 전통적인 리스크관리에서 현대적인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규격화가 필요
-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 인식의 제고와 추진을 통한 사회전반의 리스크관리 비용감소를 위해 미국, 호주(The Risk Management Standard, AS/NZS 4360-2004), 일본(JIS Q 2001, リスク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指針) 등과 같은 종합리스크관리규격을 국가차원에서 제정하여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함.
- 재해 경감법에 적용되는 재해의 범위가 향후에는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해로까지 확대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경감법에서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로만 되어 있어 기업의 사업연속성 리스크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경감법에 적용되는 재해의 범위가 향후에는 화재를 포함한 모든 재해로까지 확대되어야 함.
- 정부의 지원 대상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는 기업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대상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들의 지출한 재해경감 활동투자 비용 이외에 보험가입비용

도 법인세 공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재해경감지원법 제21조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기업이 지출한 재경감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은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기업들의 지출한 재해경감 활동투자 비용 이외에 보험가입비용도 법인세 공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음.

☐ 이상과 같은 선진국형의 종합리스크관리규격이 마련되게 되는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이러한 정부차원의 기반의 마련과 동시에 손해보험회사들도 일본이나 유럽 손해보험회사들처럼 사업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할 필요가 있음.

6. 도덕적 해이 방지

☐ 국내 기업들이 생각하는 기업휴지보험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보험료부담 등의 경제적 요인만 주요요인을 들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의 전문가 양성은 가장 후순위이라고 답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가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욱 많이 축적시키게 되면 가입자들이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등에 있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것을 더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기업휴지보험 금액을 가능하게 하여 높은 보험료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음.

- 미국의 CPCU(Chartered Property Casualty Underwriter), 영국의 CII(The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과 같은 전문적인 언더라이터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휴지보험의 보험료산정에 있어 해외 재보험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관행을 탈피하여 보험회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VI. 결 론

-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휴지보험 역사는 40년이 되어 가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이나 요율의 변화에 비교하면 초라한 상태이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업휴지보험은 기업들의 니즈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요율플랜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기업과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향후 기업휴지보험가입 의향의 차이는 가입하지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효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기업휴지보험 가입기업과 미가입의 인식차

구 분	BI 가입기업	BI 미가입 기업
향후가입 의향	93.3%(제조업 91%)	11.5%(제조업 10.3%)
BI보험 효용	부채비율 : 사고전후 3년간 표준편차 10%이내	150% 이상 증가, 외부 자금 조달 필요
	영업레버리지비율 : 사고 후 비율 증가가 미미	사고 후 300% 이상 증가해 고정비지출 부담가중
	ROE : 감소하지 않고 증가해 투자자 유치 무난, 새로운 사업 확장 가능	100% 이상 급격히 감소해 투자자 외면가능성 증가

- 기업휴지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과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성과는 물론이고 자금운용 등 재무관리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휴지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고 이에 기초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 보험사들은 담보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업연속관리(BCP)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들의 사업연속성 관리계획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와 보험 상품을 제공하여 국가의 내재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협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